



최종원 | 서울신학대학교 강사

1. 들어가기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레 26:21). 레위기 26장에서 숫자 칠(שבע)은 독특한 문학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숫자는 분명히 성결법 아래 있고, 동시에 계약적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된다. 특히 이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경우 내려지는 저주 내지는 형벌의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신명기 계약사고 아래 있음을 알

1) 이 논문은 필자의 학위논문으로 출판된 J.-W. Choi, *Zur Bedeutung der Zahl Sieben. Eine literar- und kompositionskritische Studie zu den Vorstellungen von Fluch und Strafe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KAANT 11; Kamen: hartmut spenner, 2011), 163-214을 보충 연구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법과 조약이라는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신앗시리아 시대의 문서 형태는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히타이트 조약들의 문체들을 새롭게 발전시켜 국제적이며 문화적인 흐름을 선도하는 데에 기여했기 때문이다.²⁾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조약 본문 안에서 사용되는 숫자 칠은 정치적이며 법적인 가치로 대표되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최근에 계약 신학의 연구는 신명기와 고대 근동의 본문들 사이의 구성 속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데에 열정을 쏟고 있다. 이 결과로 저주 본문들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 ‘쉐바’(שבב)는 일차적으로 특별한 표현 법들(Sprachformen) 때문에 언어학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숫자 칠이 언어적 의미로서 연구되는 한, 그것은 신앗시리아 시대에 서부와 동부의 문화를 연결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³⁾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명기 계약 사고에 대한 연구 방향을 앗시리아 문화권에서 북서 셈어 영역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⁴⁾

문화적 특징으로서 숫자 칠은 가장 대표적인 단서가 된다. 우리는 이 숫자를 북서 셈어 문화권에 속하여 있는 스피르(S^efire), 텔 페케리에(Tell Fekherije) 그리고 부칸(Bukān) 비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신명기의 계약 사고(신 28장)를 이어받고 있는 레위기 26장의 ‘위협’ 단락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해답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2) W. F. Alfonso, "Die hethitische Vertragstradition in Syrien" (14.-12. Jh, v. Chr.), M. Witte u.a.(ed.), *Die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Redak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zur "Deuteronomismus"-Diskussion in Tora und vorderen Propheten*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6), 303-329.

3) H. U. Steytmans, *Deuteronomium 28 und die adē zur Thronfolgeregelung Asarhaddons: Segen und Fluch im Alten Orient und in Israel*, OBO 145 (Freiburg Schweiz: Universitätsverlag/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4) G. Beckman, "Hittite Treat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Cuneiform Treaty Tradition", M. Witte u.a.(ed.), *Die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Redak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zur "Deuteronomismus"-Diskussion in Tora und vorderen Propheten*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6), 297f. 그는 스피르 비문이 히타이트 조약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고대 근동의 자료들 속에서 제시된 숫자 칠은 어떤 본문들 속에서 어떤 역할 또는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 레위기 26장에서 숫자 칠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이며 일곱 겹의 구조가 나타나는지?

2. 북서 셈어에 나타난 숫자 칠

1) 스피르(S^o fire) 비문⁵⁾

아람어로 쓰여진 스피르 비문은 주전 8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는 국가조약비문이다.⁶⁾ 이 비문이 중요한 것은 신앗시리아의 부흥기 동안 어떻게 북서 셈어 계열의 서기관들이 외국 문화의 강한 영향 속에서도 자신의 고유한 전통사적인(traditionsgeschichtlich)⁷⁾ 사고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필자는 대표적으로 두 개의 단락(I A 35b-42와 I A 21b-24a)을 통하여 숫자 칠과 일곱 겹의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I A 35b-42절

이 단락은 첫 번째 비문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자리잡고 있고, 조약 파기시 봉신국가의 왕인 피조약자가 받게 될 저주의 목록들을 소개하고

5) 이 비문의 자세한 분석과 비평에 대해서 J.-W. Choi, 위글, 20-74를 보라.
 6) 비문의 역사와 논쟁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J. A. Fitzmyer, *The Aramaic Inscriptions of Sefire, Biblica et orientalia* 19/A (E.P.I.B.: Rome, ²1995), 17ff.; H. Donner and W. Röllig, *Kanaanäische und Aramäische Inschriften, Band II* (Otto Harrassowitz: Wiesbaden, 1968), 238; D. Schwiderski, *Die alt- und reichsaramäischen Inschriften, Band II, Texte und Bibliographie* (Berlin: Walter De Gruyter, 2004), 402 이하; F. M. Fales, "Evidence for West-East Contacts in the 8th Century BC: The Bukān Stele", G. B. Lanfranchi, M. Roaf and R. Rollinger(ed.), *Continuity of Empires, Assyria, Media and Persia (History of the Ancient Near East Monographs 5)*, (Padova: A.a.r.g.o.n. Editrice e Libreria, 2003), 145; E. Lipiński, *The Aramaeans, Their ancient History, Culture, Religion*, *Orientalia Lovaniensia Analecta* 1 (Leuven u.a.: Peeters, 2000), 221-231를 참고하라.
 7) 독일어의 Überlieferungsgeschichte(전승사)와 차이를 두고자 '전통사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있다.⁸⁾

절	본 문	번 역
35b	איך זי תקד שעותא זא באש כן תקד ארפד ובנתה ר(?) ³⁶ בת	이 밀랍 남자 형상이 불에 타는 것처럼, 아르파트와 그에게 속한 수 많은 도시들이 탈 것이다.
36b	ויזרע בהן הדרד מלח ושחלין ואל תאמר	그리고 하닷이 그 속에 소금과 겨자를 뿌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더이상 언급되지 않 을 것이다
36c-37a	גנבא זבה ו[.....] ³⁷ מתעאל ונבשה הא	이 꼬리와 [...]은 마티엘과 그의 사람들이 다
37b-38a	איכה זי תקד שעותא זא באש כן יקד מ[מתעאל בא] ³⁸ ש	이 밀랍 남자 형상이 불에 타는 것처럼, 마티엘 역시 불에 탈 것이다
38b-39a	ואיך זי תשרב קשתא וחציא אלן כן ישבר אנרת והדרד קשת מתעאל וקשת רבוה ³⁹	그리고 이 활과 화살이 부러지는 것처럼, 이누타(Inurta)와 하닷이 마티엘과 그의 왕 국을 부러뜨릴 것이다.
39b	ואיך זי יער גבר שעותא כן יער מתעאל ^ל	그리고 밀랍 남자 형상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마티엘도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39c-40a	ואיך ז40י ינזר עגלא זנה כן ינזר מתעאל וינזרן רבוה	이 송아지가 절단되는 것처럼, 마티엘과 그의 왕국 역시 절단되어질 것이다.
40b-41a	[[?]] ואיך זי תע41רר ז[נניה(?)] כן יעדרן נשי מתעאל ונשי עקרה ונשי ר[בוה]	[이것이 벌거벗겨지듯이], 마티엘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국의 아녀자 들이 벌거 벗겨질 것이다.
41b-42	ואיך תקד גברת שעותא זא וימחא על אפיה ואיך כן יקחן [נשי מתעאל ו.....]	이 밀랍 여자 형상이 붙잡혀가고 사람들이 그녀의 얼굴을 때리듯이, 마티엘과 그의 아 녀자들과 그의 왕국의 아녀자들이 잡혀갈 것이고 그녀의 얼굴이 맞게 될 것이다.

8) 참고, H. F. van Rooy, "The structure of the Aramic treaties of Sefire", *JSem* 1/1 (1989), 133-139.

이 단락(35b-42절)은 히타이트 조약 문서에서 ‘시각적 표현 (demonstratio ad oculos)’⁹⁾으로서 ‘איך זי’ (Gleichwie dieses)라는 비유적 공식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저주를 “직유적 저주”(simile curse)라 불린다.¹⁰⁾ 이 문단에서 저주의 의미가 일곱 겹의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 ① כן איך זי תקד (마치 ... 타듯이, 그렇게)
- ② כן איכה זי תקד (마치 ... 타듯이, 그렇게)
- ③ כן ואיך זי תשבר (그리고 마치 ... 부서지듯이, 그렇게 ...)
- ④ כן ואיך זי יער (그리고 마치 ... 눈 멀게 되듯이, 그렇게 ...)
- ⑤ כן ואיך זי יגזר (그리고 마치 ... 쪼개 지듯이, 그렇게 ...)
- ⑥ כן ואיך זי יערר (그리고 마치 ... 노출되듯이, 그렇게 ...)
- ⑦ כן ואיך זי תקח (그리고 마치 ... 얻게 되듯이, 그렇게 ...)

각각의 문장은 ‘비유적 주술’(Analogiezauber)로 표현된다. 이 상징적인 행위들은 마력적인 힘을 가지고 피조약자를 위협한다. 이 표현들은 분명 고대 근동의 주술적이며 마력적인 사고체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저주 공식들(Fluchformeln)이 표면상 국가적이고 법적이고 성스러운 규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 (Mittel)으로서 사용되어진다.¹¹⁾ 놀랍게도 이 표현은 히타이트 국가에서 행한 군인들의 충성서약식의 본문에 근거하고 있다.¹²⁾ 중요한 것은 신앗시리아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종류의 문학적

9) ‘Demonstratio ad oculos’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D. R. Hillers, *Treaty-Curses and the Old Testament Prophets* (Biblica et orientalia 16; Rom: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4), 19; W. Sommerfeld, “Flüche und Fluchformeln als Quelle für die altorientalische Kulturgeschichte”, M. Dietrich and O. Loretz(ed.), *Mesopotamia - Ugaritica - Biblica*, FS K, Bergerhof, AOAT 23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3), 450f.

10) 참고. D. R. Hillers, *위클리*, 18-26.

11) W. Sommerfeld, *위클리*, 447.

12) V. Haas, *Die hethitische Literatur. Texte, Stilistik, Motive* (Berlin u.a.: Walter de Gruyter, 2006), 23f.

표현들은 발견지만, 그 본문들에서 숫자 칠과 일곱 겹의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I A 21b-24a절

본문은 다음과 같다:

절	본 문	번 역
21b	שאת [.....] ואל תהרי 어머니양,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수태치 못할 것이다.
21c-22a	ושבע [מהי]נקן ומשחון שדיהן ויהינקן עלים ואל ישבע	그리고 일곱의 유모가 그들의 가슴을 문지르고 한 아이에게 젖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22b	ושבע ססיה יהינקן על ואל ישבע	그리고 일곱 암말이 한 망아지에게 젖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22c-23a	ושבע [23] שורה יהינקן עגל ואל ישבע	그리고 일곱 암소가 한 송아지에게 젖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23b-24a	ושבע שאן יהינקן אמר ואל יש [24] בע	그리고 일곱 암양이 한 양에게 젖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24b	ושבע בכחה יהכן בשט לחם ואל יהרנן	그리고 일곱 암탉이 먹이를 찾으러 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것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 문단은 ‘그리고 만일’(והן) 문형으로 시작한다. 특징적인 문학적 표현은 ‘헛수고로서의 저주’(Vergeblichkeitsfluch)가 숫자 칠과 함께 일곱 겹의 형태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 목록에서 숫자 칠은 다섯 번 등장하고 있지만, 두 번째 스피르 비문의 본문 II A 1-3a절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본문을 재구성할 수 있다:

	I A Z, 21-24a	II A Z, 1-3a
I	שאת (어미양)
II	ושבע מהינקן (일곱 유모)

III	ושבע ססיה (일곱 암말)	ושבע ססיה (일곱 암말)
IV	ושבע שורה (일곱 암소)	ושבע שורה (일곱 암소)
V	ושבע שאן (일곱 암양)	ושבע שאן (일곱 암양)
VI		ושבע עזן (일곱 염소)
VII	ושבע בכחה (일곱 암탉)	ושבע בכחה (일곱 암탉)

이 두 가지 본문을 서로 교대로 나열해 보면, 깨어진 부분을 제하고서도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일곱 나열의 구조를 예상해 볼 수 있다. 특별히 두 본문의 나열들은 숫자 칠(שבט)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언어유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각각 네 번씩 선 문장은 숫자 칠(שבט)로 시작하고, 후 문장은 부정을 알리는 불변화 품사와 함께 동사 שבט(배부르다, 풍족하다)를 사용하고 있다. 이 공식 'ושבע-שבט' (일곱-풍족하다)은 저주들과 함께 일곱 겹의 형식에 속하여 있다. 특별히 비문의 기록자는 동음이의어(Homographie)라는 문학적인 양식수단을 사용하여 아르파트 국가를 향한 배고픔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 서기관은 이러한 언어유희를 사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봉신국가에 대한 조약 의무를 더 견고히 하고자 했고, 이 사고는 셈어 영역으로 흘러간 중요한 단서가 된다. 주목할 것은 이 '헛수고로서의 저주'는 서부 셈어 영역에서 매우 전형적이지만, 신앗시리아의 문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텔 페케리에(Tell Fekherije) 비문

아카드어와 아람어로 주전 9세기 후반 경에 쓰여진 이 비문은¹³⁾ 아쉽게도 숫자 칠은 등장하지 않지만,¹⁴⁾ 매우 조직적으로 일곱 겹의 구조를 보유

13) D. Schwemer, *Die Wettergottgestalten Mesopotamiens und Nordsyriens im Zeitalter der Keilschriftkulturen*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01), 613.

14) H. Donner and W. Röllig, *Kanaanäische und Aramäische Inschriften, Band I*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02), S. 74f. 문학적인 참고를 위하여 다음의 글을 보라: D. Schwiderski, "Studien zur Redaktionsgeschichte und Religionsgeographie der akkadisch-

하고 있다. 이 본문 중 17-23절의 단락을 살펴보자:

	행	신이 주어 문장	신이 주어아 아닌 문장
	17	하닷(Hadad)	הדרד לחממה ומוה אל ילקח מן ידה (하닷이 그의 음식과 음료를 그의 손에서 받지 않을 것이다)
	18	썬발라(Sawi)	סול מראתי לחממה ומוה אל תלקח מן ידה (썬발라, 나의 여신은 그의 음식과 음료를 그의 손에서 받지 않을 것이다)
I	19a		ולזרע (그리고 그가 심을지라도) ואל יחצר (거두지 못할 것이다)
II	19b		ואלה שערין לזרע (그리고 천 홉의 보리를 심을지라도) ופריס לאחז מנה (반 정도만 거두어 들일 것이다)
III	20a		ומאה סאון להינקן אמר (그리고 백마리 어미양이 한마리의 새끼양에게 젖을 먹일지라도) ואל ירוה (그것은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IV	20b-21a		ומאה סור להינקן עגל (그리고 백 마리 암소가 한 송아지에게 젖을 먹일지라도) ואל ירוי (그것은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V	21b		ומאה נשון להינקן עלים (그리고 백 명의 여인들이 한 아기에게 젖을 먹일지라도) ואל ירוי (그것은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VI	22a		ומאה נשון לאפן בתנור לחם (그리고 백 명의 여인들이 한 솥에 빵을 구울지라도) ואל ימלאנה (그것을 채우지 못할 것이다)
VII	22b		ומן קלקלתא ללקטוי אנשוה שערין לאכלוי (그리고 그의 남자들이 배설물에서 보리를 주워 먹어야만 할 것이다)
	23	네르갈(Nergal)	ומותן שבט זי נירגל אל ינתזר מן מתה (그리고 전염병인 네르갈의 지휘봉이 그의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aramäischen Bilingue vom Tell Fe'èrîje", E. Schwertheim and E. Winter(ed.), Religion und Region, Götter und Kulte aus dem östlichen Mittelmeer, Asia Minor Studien 45 (Bonn: Dr. Rudolf Habelt, 2003), 31-47.

이 단락에서 ‘부정어 la+미완료(Vetitiv)’¹⁵⁾ 형태가 I, III, IV, V, VI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II와 VII에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22a열은 스피르 비문 I A의 24열, 레 26:26 그리고 부칸 비문과 비교되어지고, 16열의 분사형 구조는 ‘헛수고로서의 저주’인 19a, 19b 그리고 22b와 연결된다. 테두름으로서 신을 주어로 하고 있는 17열과 18열은 마지막 열인 23열과 연결된다. 분명히 19-22열은 저주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일곱 겹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부칸(Bukān) 비문¹⁶⁾

주전 700년 경으로 추정되는 이 비문은 1985년에 우르미아 호수 근처 남동쪽 방향에서 발견되었다.¹⁷⁾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비문에서 북서셈어적 인 왕의 비문과 국가조약들에서 나타나는 저주의 목록이 등장한다는 것이다.¹⁸⁾ 이 저주는 문학적이고 문체적인 형식이 스피르 비문과 텔 페케리에 비문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본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행	신이 주어진 문장	신이 주어가 아닌 문장
	3	신들	각각의 전염병을 그 신들이 왕의 지역에 내릴 것이다
I	4		그리고 그가 신들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II	5		그리고 그가 BZ TR의 할디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III	6		일곱 암소들이 한 마리의 송아지에게 젖을 줄지라도, 그는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IV	7		그리고 일곱 명의 여인들이 한 술에서 빵을 구울지라도, 그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V	8		그리고 그의 지역에서 불의 연기와 방아를 짚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다

15) Vetitiv는 무엇인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의 문법적 용어이다.

16) H. Donner and W. Röllig, *윳글* (2002), 79; F. M. Fales, *윳글*, 131-147.

17) 연대 측정을 위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I. Eph'al, "The Bukān Aramaic Inscription: Historical Consideration", *IEJ* 49 (1999), 116.

18) I. Eph'al, *윳글*, 116.

VI	9		그리고 그의 땅이 소금기를 띠게 될 것이다
VII	10		그리고 그것은 독이 있는 잡초로부터 독하게 될 것이다
	11	하닷과 할디	하닷과 할디가 그의 왕관을 파괴할 것이다
	12	하닷	그리고 칠 년간 하닷이 그의 목소리를 그의 영역에서 울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스피르와 텔 페케리에 비문처럼, ‘헛수고로서의 저주’가 숫자 칠(일곱 암소들, 일곱 여인들)과 함께 사용된다. 또한 동음이의어(שבעת..שבע)는 북서 셈어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서기관의 사고 체계의 전승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3. 신명기 28장 20-44절

새로운 신명기 연구¹⁹⁾에서 신명기 28장은 북서 셈어 전통 아래 서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²⁰⁾ 레위기와의 연관성을 위하여 대표적으로 두 문단만 살펴보고자 한다.

(1) 20-29절

이 문단은 간접명령형(Jussiv)으로서 yiqtol-x 형태가 7번 나타나고 있다(20, 21, 22, 24, 25, 27, 28절). 23, 26, 29절에서 바브-연계형(w-copulativum)을 고려해 볼 때, 이 문단에서 일곱 가지의 개별적인 조항들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22절은 일곱 겹의 도식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19) 새로운 신명기 연구사에 대해서 다음을 참고하라. U. Rüterswörden, "Alte und neue Wege in der Deuteronomiumforschung", ThLZ 132 (7/8) (2007), 877-889.

20) 참고. E. Otto, *Das Deuteronomium im Pentateuch und Hexateuch: Studien zur Literaturgeschichte von Pentateuch und Hexateuch im Lichte des Deuteronomiumrahmens*, FAT 30 (Tübingen: Mohr Siebeck, 2000); 윤영준, "쉐마(신 6:4-5)와 에살핫돈의 왕위계승조약과의 비교 연구", 「구약논단」제14권 3호 (통권 29집) (2008년 9월), 31-46.

	22 절	27 절	28 절
	יככה יהוה (아웨께서 치실 것이다)	יככה יהוה (아웨께서 치실 것이다)	יככה יהוה (아웨께서 치실 것이다)
I	בשחפת (폐병으로)	בשחין מצרים (애굽의 종기로)	
II	ובקדחת (열병으로)	ועפלים (치질로)	
III	ובדלקת (염증으로)	ובנגרב (피혈병)	
IV	ובחרחר (화질로)	ובחרס (피부병)	
V	ובחרב (칼로)		בשגעון (미치게 함으로)
VI	ובשדפון (풍재로)		ובעורון (눈멀게 함으로)
VII	ובירקון (썩는 재앙으로)		ובתמהון לבב (정신병으로)

22절에서 7개의 저주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저주의 주제로 나눌 수 있다: 1) 열병(데베르, דבר): 인간의 질병(폐병, 열병, 상한, 화질), 2) 칼(헤레브, חרב)²¹⁾: 전쟁 그리고 3) 기근(라야브, רעב): 자연의 질병(풍재와 썩는 재앙). ‘칼, 배고픔, 전염병’²²⁾이 예레미야의 주요한 문학적 표현이 되고 있지만, ‘라야브’(רעב)가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22절에서 처음 4개의 단어들(שחפת, קדחת, דלקת, חחרח)은 전염병(Pest)을 의미하고, 내용상 분명히 21, 27-29절과 연결된다. 두 번째 영역인 전쟁의 의미로서 칼(חרב)은 마소라 전승과 연결해 볼 때, 본문비평을 통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자연적인 재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²³⁾ 그것은 본문의 흐름상 칼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70인역은 φόνος(살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역시 애매 모호한 표현이다. 우리는 여기서 스피르 본문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볼

21) 개역개정판에서 ‘한재’로 번역하고 있다.

22) 렘 14:12; 21:7,9; 24:10; 27:8,13; 29:17,18; 32:24,36; 34:17; 38:2; 42:17,22; 44:13.

23) E. Nielsen, *Deuteronomium*, HAT 1/6 (Tübingen: Mohr Siebeck, 1995), 258. 그는 신 28:22을 처음 4가지를 인간의 질병들로 이해하고, 이어 나오는 3가지를 곡식에 대한 질병들로 해석한다.

수 있다. 본문에서 칼(חרב)이 נכה 라는 동사와 함께 사용되고 있듯이, 스피르 III 12d-13a절에서도 동사 ‘나카’(נכה)는 칼과 함께 사용된다. 맛소라 전승으로 본문을 읽는다면, 분명 이 단어의 의미는 전쟁 상황을 표현하는 25-26절과 연관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배고픔’ 과 관련이 있는 두 단어(שרפון, וירקון)는 의미상으로 23-24절과 연결된다. 결론적으로 22절은 ‘전염병-전쟁-기근’이라는 주제로 사용되고 있고, 이 주제가 23-29절에서 역으로, 즉 ‘기근-전쟁-전염병’으로 다시 설명되어지고 있다: A-B-C-C’ -B’ -A’ . 분명 이 일곱 겹의 형식(Siebener-Schema)은 북서 셈어적 영향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2) 30-32절

이 문단은 일곱 개의 ‘헛수고로서의 저주(Vergeblichkeitsfluch)’로 구성되어 있다:

	절	전 치 문	후 치 문
I	30 ^{aa}	אִשָּׁה תֹאמַר (한 여자와 내가 약혼할 것이다)	וְאִישׁ אַחֵר יִשְׁנֶנָּה (그러나 다른 남자가 그녀와 누울 것이다)
II	30 ^{aβ} -γ	בֵּית תִּבְנֶה (집을 내가 지을 것이다)	וְלֹא תִחְשַׁב בּוֹ (그러나 내가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III	30 ^b	כֶּרֶם תִּטַּע (네가 포도를 심을 것이다)	וְלֹא תִחַלְלֶנּוּ (그러나 네가 그것을 따지 못할 것이다)
IV	31 ^{aa}	שׂוֹרֵךְ טְבוּחַ לְעֵינֶיךָ (네 소를 네 눈앞에서 잡을 것이다)	וְלֹא תֹאכַל מִמֶּנּוּ (그러나 네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V	31 ^{aβ} -γ	חֲמֹרֶךָ נֹזֵל מִלִּפְנֵיךָ (네 나귀가 네 앞에서 빼앗길 것이다)	וְלֹא יָשׁוּב לָךְ (그러나 그것이 네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VI	31 ^b	צֶאֱנָךְ נִתְּנוֹת לְאִיבֵיךָ (네 작은 가축이 너의 적에게 넘겨질 것이다)	וְאִין לָךְ מוֹשִׁיעַ (그러나 위하여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VII	32	בְּנִיךָ וּבְנֵיךָ נִתְּנוּ לְעַם אַחֵר וְעֵינֶיךָ רְאוּת וְכֹלֹת אֵלֵיהֶם כָּל־הַיּוֹם (네 아들들과 딸들이 다른 민족에게 넘겨지고 너의 눈이 찾고 종일 그들을 열망할 것이다)	וְאִין לְאֵל יָדְךָ (그러나 네 손의 힘이 없을 것이다)

이 구문은 38-44절과 관련을 맺고 있다. 32절과 41절은 전쟁은 내용으로 하는 일반적인 실습을 표현한다. 구문상 33a절은 이 문단의 저주 형태와 맞지 않다. 또한 33a절의 “토지 소산”은 내용상 편집사적으로 추가본문인 42절에서 다시 반복하여 나타난다. 33b절의 “압제와 학대”는 29절과 내용상 연계된다.²⁴⁾ 이러한 ‘헛수고로서의 저주’ 형태가 옛살하돈의 왕위 계승조약본문(VTE)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쉬타이만스는 이 부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4. 레위기 26장 14-33절

1) 레위기 26장에 대한 전이해

레위기 26장 3-45절은 최근 학자들로부터 오경형성의 가장 중요한 열쇠로서 주목받고 있다.²⁵⁾ “약속과 위협”²⁶⁾이라는 의미 속에서 이 단락은 레위기의 구조를 재조명해 주고 있고, 나아가 오경 전체의 구조를 형성하게 된 새로운 편집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²⁷⁾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레위기 26장의 위협 문단인 14-45절을 신명기 28장과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힐러스(D. R. Hillers)는 “조

24) 더 자세한 본문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Jong-Won Choi, *읽음*,

25) Ch. Nihan, *From Priestly Torah to Pentateuch*, FAT 2, Reihe 25 (Tübingen: Mohr Siebeck, 2007), 536. 참고. 채홍식, “성결법전(레 17-26)의 형성에 관한 고찰 -레 19:3-18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집 (2000년 8월), 59-82.

26) H. U. Steymans, “Verheissung und Drohung: Lev 26”, H.-J. Fabry and H.-W. Jüngling(ed.), *Leviticus als Buch* (Berlin u.a.: Philo, 1999), 265.

27)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제사장 문서 안으로 편집: J. Wellhausen,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und der historis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63), 149; (2)제사장 문서로서 편집: K. Elliger, Art.: Heiligkeitgesetz, RGG3 (1959), 175-176; (3)포로기 이후 편집: E. Otto, “Innerbiblische Exegese im Heiligkeitgesetz Levitikus 17-26”, H.-J. Fabry and H.-W. Jüngling(ed.), *Leviticus als Buch* (Berlin u.a.: Philo, 1999), 137; (4) 신명기사가적 편집: N. Lohfink, “Die Abänderung der Theologie des priestlichen Geschichtswerks im Segen des Heiligkeitgesetzes. Zu Lev 26,9,11-13,” H. Gese and H. P. Rüger(ed.), *Wort und Geschichte* (Kevelaer: Neukirchen-Vluyn, 1973), 167; J. Joosten, “Covenant Theology in the Holiness Code,” ZAR 4 (1998), 145.

약과 저주”라는 주제 아래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의 저자가 각각 자신의 방법으로 조약의 저주를 사용했고, 레위기는 직접적으로 신명기의 저주도 메소포타미아의 저주도 의존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²⁸⁾ 콜레빈 스키(A. Cholewiński) 역시 두 본문 사이에서 어떠한 문학적 의존의 단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²⁹⁾ 이러한 논증은 복서 셈어적 영향 아래 있는 숫자 칠과 일곱 겹의 구조를 통하여 해소될 수 있다.

2) 본문 분석

스피르 비문 I A의 14b열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14절은 “만일” (~a)-문장으로 시작한다. 이 조건절은 이후 계속해서 여섯 번 더 나타나고 있다. 네 번은 부정형 품사인 al 와 함께 14a, 18a, 23a, 27a에서 나타나고, 나머지 “만일”-문장은 15a α , 15a β , 21a α 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와 함께 나타난다. 이것을 도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לא+אם	אם+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
I	אם-לא תשמעו לי (14a α) ולא תעשו את כל-המצות האלה (14 a β)	
II		אם-בחקתי תמאסו (15 a α)
III		ואם את-משפטי תנעל נפשכם (15 a β)
IV	עדר-אלה לא תשמעו לי --~aw (18a)	
V	ולא [21a β] תאבו לשמע לי]	ואם-תלכו עמי קרי (21a α)
VI	ואם-באלה לא תוסרו לי (23a)	
VII	ואם-בזאת לא תשמעו לו (27a)	

딜만의 견해에 따라 저주문단(14-33절)은 다섯 가지 위협들로 나눌 수

28) D. R. Hillers, *위클리*, 42.

29) A. Cholewiński, *Heiligkeitgesetz und Deuteronomium* (Rom: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76), 319.

있다: 14-17절; 18-20절; 21-22절; 23-26절; 27-33절.³⁰⁾

(1) 첫 번째 위협 단락: 14-17절

첫 번째 위협 단락(14-17절)은 14a절에서 선행문장(Protasis)인 ‘만일 너희들이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לֹא תִשְׁמָעוּ אֵלַי) 브임 로 티쉬메우 리)으로 시작한다. 이 구문은 오경 안에서 오직 여기와 신명기 28장 15절; 30장 17절에서만 사용되고 있다.³¹⁾ 14절에서 ‘임’ (אם)으로 시작하는 조건절은 분명히 조약 본문들의 구성사적인 구조물들로 이해되어진다. 15절에서 다시 두 번의 조건절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웨의 파트너로서 야웨의 계명을 주의해야만 한다.³²⁾ 15aα 절의 표현인 מֹאס + חֻקָּה 은 오직 에스겔 20장 24절에서만 나타난다. 물론 공식 מִשְׁפָּט + נָעַל 역시 에스겔 20장 13,16절과 관계가 있다. 이 두 조건절 안에서의 표현들이 다시 43-44절에서 나타난다. 흥미롭게도 세 단어 מֹאס, נָעַל 그리고 פָּרַר가 44절에서 다시 사용되고 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웨와의 언약(בְּרִית 브리트)을 어긴다면(פָּרַר 파라르; 히필형), 야웨는 16a절에서 인간에게 폐병(שִׁחָפֶת 사헤페트)과 열병(קָדַח 카다하트)을 보낼 것이다. 이 두 단어들은 신명기 28장 22절에서 사용된다. 16a절은 16b절에서 전쟁으로 대적에게 패하게 되는 상황과 연결된다. 그 결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다’ (מַכְלוֹת עֵינַיִם וּמְדִיבַת נֶפֶשׁ) 메칼로트 에나임 우메디보트 나페쉬)의 위협은 신명기 28장 65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³³⁾

16b절의 참패는 17절과 관련이 있다. 문학적으로 17aα 절은 레위기 17장

30) A. Dillmann, *Die Bücher Exodus und Leviticus* (Leipzig: S. Hirzel, 1880), 622.

31) 이 선행문장은 다음과 같은 신명기사가적인 본문 속에 나타난다: 삼상 12:15; 욥 36:12; 사 40:28; 렘 12:17; 13:17; 17:27; 22:5; 26:4; 겔 20:39; 말 2:2.

32) L. Perliitt, *Bundestheologie im Alten Testament* (Neuen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14.

33) H. U. Steymans, *윗글* (1999), 270.

10b α 절과 일치하고, 신명기 28장 25a α 절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신명기 28장 25절은 라다(רָדָה)동사를 취하지 않고 있다. 분명 레위기의 편집자가 이 동사를 추가시켰을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동사가 본질적으로 왕과 관련되지 않고, 총체적 의미로서 미워하는 자와 관련을 맺고 있다.³⁴⁾

첫 번째 위협 단락에서 일곱 가지의 고통들이 나열되고 있다. 14절과 15절의 선문장(Protasis)에 따라 그 위협들은 후문장(Apodosis)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절	위협들
I	16a α	בְּהִלָּה (재앙)
II	16a α	שְׁחַפֹּת (폐병)
III	16a α	קַדְחָת (열병)
IV	16b	וְרָעַתֶּם לְרִיק וְרַעְלֶם וְאָכַלְהוּ אִיבֵיכֶם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V	17a	וְנַחֲתִי פָּנַי בְּכֶם וְנִנְפַתֶם לְפָנַי אִיבֵיכֶם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VI	17b α	וְרָדוּ בְכֶם שְׁנְאֵיכֶם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VII	17b β	וְנִסַּתֶם וְאִי־יִרְדֶּה אַחֲכֶם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2) 두 번째 위협 단락: 18-20절

두 번째 위협 단락(18-20)에서 조건절의 ‘베임-아드-엘레 로 티쉬 메우 리’ (וְאִם-עֲרִאֲלָה)는 주문장에서 ‘쉐바 알-할토테قم’ (שָׁבַע עַל-חַטֹּאתֵיכֶם) 너희 죄로 인하여 칠배)과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엘리

34) 이 동사에 대해서 U. Rüterswörden, *Dominium terrae: Studien zur Genese einer alttestamentlichen Vorstellung*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3), 97f.을 보라.

거가 묘사하듯이, 이 조건절이 원초적인 본문에서 추가된 것인지에 대한 주장은 매우 의심스럽다.³⁵⁾ 조건절 18a절은 스피르와 다른 조약 본문들에서 매우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매우 두드러진 본문의 예로 스피르 I B의 21 열 이하에서 이 조건절 문장이 뚜렷하게 국가 간의 조약으로 피조약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³⁶⁾

이러한 유사한 문장은 계속해서 21절, 23-24절, 27-28절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각각의 조건절은 여성, 단수, 절대형으로서의 쉘바(שבא)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쉘바의 절대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커다란 가뭄과 열매 없음에 대한 두 번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심판으로 하나님에 대항하여 순종하지 않은 경우에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는 이어 그들을 그들의 범죄대로 칠 배, 즉 계속 무한정으로 수 많은 징벌을 부가하기 원한다.³⁷⁾

이 단어 ‘쉘바’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대규모의 징벌과 연결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스피르 비문 I A의 본문처럼, 숫자 칠이 성결법전에서 주술적인 매개체(Zaubermedium)로서 등장한다는 것이다.³⁸⁾ 이 일곱 배의 징벌은 전통적으로 고통의 나열(Plagen-Reihen)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곱 겹의 고통 도식’(Sieben-Plagen-Schema)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³⁹⁾ 레벤텔로브에 의하면 고통의 도식의 원형이 레위기 26장에 나타나고, 특별히 고대 저주 의식에 근거한 본

35) K. Elliger, *Leviticus* (Tübingen: Paul Siebeck, 1966), 371.

36) H. Donner와 W. Röllig, *윗글* (2002), 53.

37) A. Dillmann, *윗글*, 623.

38) E. S. Gerstenberger, *Leviticu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⁶1993), 378.

39) M. Noth, *Leviticu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62), 174.

문의 내용이 이러한 구조 속으로 삽입되었다고 논증한다.⁴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주들이 트리아스(Trias)로서 ‘칼, 배고픔, 전염병’의 분명한 동기들과 함께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⁴¹⁾ 19b절에서 가뭄 재앙이 강력한 은유적 언어로 나타나고 있다. 가뭄 재앙의 결과는 분명히 배고픔과 죽음을 부른다.

19절에서 ‘하늘을 철과 같게 땅을 놋과 같게’는 분명히 신명기 28장 23절과 옛살핫돈의 왕위계승조약본문(VTE) 중 제 63번째 문단의 528절과 유사하다. 신명기 28장은 하늘과 땅의 순서로 등장하지만, 여기서 역으로 하늘이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옛살핫돈의 왕위계승조약에서는 땅과 놋의 관계가 먼저 등장하고 하늘과 철의 관계가 나중에 등장한다.⁴²⁾ 쉬타이만스가 이 표현의 원조가 앗시리아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⁴³⁾ 중요한 것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는 이인칭 소유대명사가 명사형에 접미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고대 셈어적인 경우에만 등장하는 유형이다.⁴⁴⁾ 차이가 있지만, 내용상 이 저주는 분명히 ‘헛수고로서의 저주’로 표현되고 있다.⁴⁵⁾ 이러한 문학적 발전의 공식은 숫자 칠의 의미라는 그 지평 위에서 해석되어지고 있다. 18절의 숫자 칠은 20절의 헛수고와 함께 다시 반복되어 나타난다. 여기서 20절은 헛수고의 형태와 관련하여 그 땅의 열매 없음으로 열거하고 있다. 사실 문학적인 견지 위에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이 직접적인 의존성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분명히 복서셈어적인 전통 위에서 숫자 칠과 일곱 겹의 구조가 본

40) H. Reventlow, *Das Heiligkeitsgesetz formgeschichtlich untersuch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1), 152.

41) K. Grünwaldt, *Das Heiligkeitsgesetz Leviticus 17–26. Ursprüngliche Gestalt, Tradition und Theologie*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9), 357.

42) S. Grätz, *Der Strafende Wettergott, Erwägungen zur Traditions-geschichte des Adad-Fluchs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Bodenheim: Philo, 1998), 123.

43) H. U. Steymans, *윗글* (1995), 129–133.

44) S. Grätz, *윗글*, 123.

45) *윗글*, 124.

문 안에서 구성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3) 세 번째 위협 단락: 21-22절

21a절은 두 번의 부문장인 x-yiqtol 문장이 ‘임’ (עַן)과 함께 발견된다. 21b절은 ‘브-카탈’ (w-qatal) 문장과 함께 부문장에 이어 시작한다. 계속해서 22절에서 ‘브-카탈’ (w-qatal) 문장이 후문장(Apodosis)으로 놓여져 있다. 여기서 새로운 관용구 “קָרַי הַלֵּךְ”가 21절에서 등장한다. 이어 연속적으로 23, 24, 27, 28, 40, 41절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관용구는 ‘적대성’이라는 관념적 주제를 새롭게 보여주고 있다. 이 개념은 첫 번째 위협 문단인 16절과 17절에서 “적대자들”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저주”-3개조(Trias)와 함께 놓여 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적대자로 21, 23, 27절에서 점점 더 상승한다. 또한 하나님은 24, 28, 41절에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있다. 특히 27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 서술형인 “שָׁמַע”와 “קָרַי הַלֵּךְ”가 41절에서도 발견된다. 여기서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로 잘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일곱 나열로 구성되어 있는 “עַן+부정적 의미의 문장”이 관용구인 “קָרַי הַלֵּךְ”와 함께 사용되면서 동시에 “쉐바 알-하토테킴”(שְׁבַע עַל-הַטְּאוֹתֵיכֶם)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것은 레위기 26장의 마지막 편집자의 흔적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에 22절은, 스피르 비문 I A 27-35절처럼, “들짐승”의 주제를 사막화의 동기로 포함한다. 스피르 본문은 분명 전쟁을 통한 사막화와 땅의 정복을 생태학적 재난과 함께 연결시키고 있다. 스피르 비문에서처럼, 계약 파기 시 내려질 저주로서 15bβ 절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문학적으로 에스겔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⁴⁶⁾ 약속의 단락인 6b절에서 야웨는 들짐승을 그 땅에서 몰아낼 것이다. 이 들짐승이라는 표현은 에스겔과 스피르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볼 수 있다:

46) B. Baentsch, *Exodus-Leviticus-Numeri*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03), 431.

레위기 22장 26a절	והשלחתי בכם את-חיות השרה
스피르 I A 30b열	וישלחן אלהן מן כלמה אכל בארפר ובעמה
에스겔 5장 17a절	ושלחתי עליכם רעב וחיה רעה
레위기 26장 6b절	והשבתיחיהרעה מן-הארץ

이 문학적 평행을 아랍어 영역의 자료와 비교해 볼 때, 본문의 편찬자가 문학적인 사고의 표현을 유사하게 새롭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생태학적인 재난의 사용이 본문에서 새롭게 구성되어 시기적으로 제사장 문서의 시기보다 늦게 재구성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⁴⁷⁾ 이러한 사고로부터 22절 이하와 6절의 저자는 포로기의 재난 상황을 저주 형태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⁸⁾

(4) 네 번째 위험 단락: 23-26절

이 단락은 조건절(םם)로 시작한다. 내용상 “저주”-3개조(Trias)가 사용되고 있고, 25절에서는 “칼”과 “염병”의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다. 스피르 비문처럼, 동사 “עבע”가 26절에서 “헛수고로서의 저주”(Vergeblichkeitsfluch)와 함께 언어유희(Wortspiel)의 역할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복서 셈어의 문학적 표현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텔 페케리에 22a절	그리고 백 명의 여인들이 한 술에 빵을 구울지라도, 그것을 채우지 못할 것이다.
부칸 7열	그리고 일곱 명의 여인들이 한 술에서 빵을 구울지라도, 그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레위기 26장 26절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47) U. Rüterwörden, *위글* (1993), 73f.

48) 오경형성과 관련하여 이 본문 안에 후기 제사장적 사고가 있는지 아니면 신명기사가적 사고만 있는지 또는 후기 제사장적 사고와 신명기사가적 사고가 함께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열려있다. 이 주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상의 유사성은 전통적으로 문학적인 모습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또는 복서 셈어 영역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문장이 텔 페케리에와 부칸에서 일곱 겹의 구조와 함께 저주의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25b절인 “그리고 내가 너희 중에 염병을 보낼 것이다”(וְשַׁלַּחְתִּי רָבֵר בְּתוֹכְכֶם) 베실라흐티 데베르 베틀캅)는 형태상 신명기 28장 21절과 23절에 매우 가깝다. 관용구 “רָבֵר + שָׁלַח”는 예레미야 29장 17절; 에스겔 14장 19, 21절; 28장 23절; 아모스 4장 10절; 역대하 7장 13절에서 나타난다. 아모스 4장 10절에서 아웨가 일인칭으로 심판을 선포하지만, 신명기는 삼인칭으로 나타난다.

(5) 다섯 번째 위협 단락: 27-33절

다섯 번째 위협 단락은 저주 위협의 최고조에 해당한다. 배고픔, 병, 그리고 전쟁이 최대치로 상승되어지고, 그들의 무시무시한 마지막이 29절의 동족호식(Kannibalismus), 30절의 죽음과 33절의 민족들에 의한 파괴로 상승되고 있다.⁴⁹⁾

27절은 21절과 23절처럼 조건절로 시작하고, 거기서 “나에게 대항하다”(הִלַּךְ עִמִּי קָר)라는 관용구가 발견된다. 여기서 “שָׁבַע + יָסַר” 공식이 주문장에서 위치한다. 28b절의 결과는 23a절에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각각의 문장은 문학적으로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 29절의 동족호식의 주제가 신명기 28장 53-57절에서 나타난다. 거기서 동족호식은 전쟁이라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30-33절은 에스겔 5-6장과 유사하다. 30절의 “재단을 깨뜨림”은 에스겔 6장 3절과 비교된다. 31-32절에서 이스라엘 도시들의 황폐화의 공식화는 에스겔 6장 6절과 비교된다. 내용상 30b절은 11b절과 상대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33a절은 에스겔 5장

49) 참고, E. S. Gerstenberger, *윗글*, 386; K. Grünwaldt, *윗글*, 360f.

12b절(והרב אריק אהריהם)과 매우 가까운 문학적 유사성을 가진다. 33b절은 예레미야 44장 6절처럼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의 상황과 비교되어질 수 있다.

이 단락은 문학적으로 잘 구성된 본문이다. 먼저 27-28절이 교차배열법(chiastisch)으로 만들어져 있다. 다음과 같은 A-B-B'-A'구조가 만들어진다:

- A: ואם־בזאת לא תשמועו לי (V. 27a)
- B: בקרי עמי הלכתם עמי (V. 27b)
- B': והלכתי עמכם בחמת־קרי (V. 28a)
- A': ויסרתי אתכם אף־אני (V. 28b α)

이 구조가 23-24절에서 인식되어 질 수 있고, 거기서 전통사적인 “저주”-3개조(Trias)가 확대되어 있다.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것은 29절이 교차배열법으로 놓여져 있다:

- A: ואכלתם (a1)
- B: בשר בניכם (a2)
- B': ובשר בנתיכם (b1)
- A': תאכלו (b2)

이런 의미로 볼 때, 31-33절의 구절들이 구성적인 특성으로서 가치가 있게 된다. 역시 다음과 같은 구조로 나타난다:

- A: ונתתי את־עריכם חרבה (31a α)
- B: והשמתי אני את־הארץ (32a)
- B': והיתה ארצכם שממה (33b α)

이 구조로 볼 때, 분명 30절만 남게 된다. 30a α 절에서 “산당을 깨뜨림”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30a α 절의 “산당”(במה)과 31a β 절의 “성소”(מקדש)가 아모스 7장 9절과의 관련 속에서 평행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관찰된다. 아모스 7장 9절에서 이스라엘의 “성소”의 개념은 직접적으로 “황폐해 있다”(חרב)와 함께 형성되고 있고, 동시에 “산당”의 부서짐은 “버려지다”(שמם)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산당과 성소의 부서짐은 레위기 26장에 보충되고 있다.

5. 나가기

구성사적으로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라는 공식과 병행하여 있다. 이러한 개념이 신명기사가적 그리고 제사장적 사고를 종합한 한 집필자에 의하여 “약속과 위협”이라는 구도 속에서 새롭게 재편성되었다. 레위기 26장에서 중심에 서 있는 단락은 위협 단락(14-33절)이다. 이 단락은 에스겔 5장, 14장 그리고 20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포로기 상황을 전제하고 있고, 또한 신명기사가적인 사상의 연계로서 서 있다. 이 논지는 앞으로 성결법의 형성과정 뿐만 아니라 오경 형성사를 연구하는데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숫자 칠(18절, 21절, 24절, 28절)은 “저주”-3인조 그룹인 “칼, 배고픔, 전염병”과 함께 위협 단락에서 등장한다. 거기서 일곱 겹의 부정적인 조건절들이 구성사적으로 조직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집필자는 신명기 28장의 문학적인 문체와 에스겔의 신학적 사고를 이어받아 종합했고 확장했다. 이 구성사적인 관점은 고대 근동에 나타난 복서 셈어의 사상적인 측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의존해 있다. 이 사고의 발전은 레위기 26장의 위협 단락이 원초적으로 숫자 칠과 일곱 겹의 구조를 사용하는 신명

기 28장의 서기관적 사고를 이어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내용상 17절은 북서 셈어적인 언어로서 스피르 I A 25b-30절과 비교될 수 있다.

본문에서 숫자 칠과 일곱 겹의 구조가 포로기 상황 속에서 반영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본문의 기록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의 파기 또는 조약의 파기(Vertragsbruch)라는 문학적 유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미 이러한 사상의 연계는 북서 셈어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스피르 비문, 텔 페케리에, 그리고 부칸 비문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숫자 칠은 계약의 파기 시 저주와 징벌로서 등장하는 독특한 사고를 표현하는 단어로 이해될 수 있다.

6. 참고문헌

윤영준, “쉐마(신 6:45)와 에살핫돈의 왕위계승조약과의 비교 연구”, 『구약논단』 제14권 3호 (통권 29집) (2008년 9월), 31-46.

채홍식, “성결법전(레 17-26)의 형성에 관한 고찰 -레 19:3-18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집 (2000년 8월), 59-82.

Alfonso, W. F., “Die hethitische Vertragstradition in Syrien” (14.-12. Jh. v. Chr.), M. Witte u.a.(ed.), *Die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Redak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zur “Deuteronomismus”-Diskussion in Tora und vorderen Propheten*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6), 303-329.

Baentsch, B., *Exodus-Leviticus-Numeri*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03).

Beckman, G., “Hittite Treat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Cuneiform Treaty Tradition,” M. Witte u.a.(ed.), *Die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Redak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 zur “Deuteronomismus”-Diskussion in Tora und vorderen Propheten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6), 279-301.
- Choi, J.-W., *Zur Bedeutung der Zahl Sieben. Eine literar- und kompositionskritische Studie zu den Vorstellungen von Fluch und Strafe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KAANT 11; Kamen: hartmut spenner, 2011).
- Cholewiński, A., *Heiligkeitsgesetz und Deuteronomium* (Rom: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76).
- Dillmann, A., *Die Bücher Exodus und Leviticus* (Leipzig: S. Hirzel, 1880).
- Donner, H. and Röllig, W., *Kanaanäische und Aramäische Inschriften, Band I*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02).
- _____, *Kanaanäische und Aramäische Inschriften, Band II* (Otto Harrassowitz: Wiesbaden, 1968).
- K. Elliger, Art.: Heiligkeitsgesetz, RGG3 (1959), 175-176.
- _____, *Leviticus* (Tübingen: Paul Siebeck, 1966).
- Eph'al, I., “The Bukān Aramaic Inscription: Historical Consideration”, *IEJ* 49 (1999), 116-121.
- Fales, F. M., “Evidence for West-East Contacts in the 8th Century BC: The Bukān Stele”, G. B. Lanfranchi, M. Roaf and R. Rollinger(ed.), *Continuity of Empires. Assyria, Media and Persia (History of the Ancient Near East Monographs 5)*, (Padova: A.a.r.g.o.n. Editrice e Libreria, 2003), 131-147.
- Fitzmyer, J. A., *The Aramaic Inscriptions of Sefire*, *Biblica et orientalia* 19/A (E.P.I.B.: Rome, ²1995).
- Gerstenberger, E. S., *Leviticu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⁶1993).
- Grätz, S., *Der Strafende Wettergott. Erwägungen zur Traditionsgeschichte des*

- Adad-Fluchs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Bodenheim: Philo, 1998).
- Grünwaldt, K., *Das Heiligkeitsgesetz Leviticus 17-26. Ursprüngliche Gestalt, Tradition und Theologie*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9).
- Haas, V., *Die hethitische Literatur. Texte, Stilistik, Motive* (Berlin u.a.: Walter de Gruyter, 2006).
- Hillers, D. R., *Treaty-Curses and the Old Testament Prophets* (Biblica et orientalia 16; Rom: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4).
- Joosten, J., “Covenant Theology in the Holiness Code”, *ZAR* 4 (1998), 145-164.
- Kaufman, S. A., “Reflections on the Assyrian-Aramaic Bilingual from Tell Fakhariyeh”, *Maarav* 3 (1982), 137-175.
- Lipiński, E., *The Aramaeans, Their ancient History, Culture, Religion*, Orientalia Lovaniensia Analecta 1 (Leuven u.a.: Peeters, 2000).
- Lohfink, N., “Die Abänderung der Theologie des priestlichen Geschichtswerks im Segen des Heiligkeitsgesetzes. Zu Lev 26,9.11-13”, H. Gese and H. P. Rüger(ed.), *Wort und Geschichte* (Kevelaer: Neukirchen-Vluyn, 1973), 129-136.
- Nielsen, E., *Deuteronomium*, HAT 1/6 (Tübingen: Mohr Siebeck, 1995).
- Nihan, Ch., *From Priestly Torah to Pentateuch*, FAT 2. Reihe 25 (Tübingen: Mohr Siebeck, 2007).
- Noth, M., *Leviticu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62).
- Oettinger, N., *Die militärischen Eide der Hethiter*, StBT 22 (Wiesbaden: Harrassowitz, 1976).
- Otto, E., *Das Deuteronomium im Pentateuch und Hexateuch: Studien zur*

- Literaturgeschichte von Pentateuch und Hexateuch im Lichte des Deuteronomiumrahmens*, FAT 30 (Tübingen: Mohr Siebeck, 2000).
- _____, “Innerbiblische Exegese im Heiligkeitsgesetz Levitikus 17-26”, H.-J. Fabry and H.-W. Jüngling(ed.), *Leviticus als Buch* (Berlin u.a.: Philo, 1999), 125-196.
- Perlitt, L., *Bundestheologie im Alten Testament* (Neuen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 Reventlow, H., *Das Heiligkeitsgesetz formgeschichtlich untersucht* (Neuen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1).
- van Rooy, H. F., “The structure of the Aramic treaties of Sefire”, *JSem* 1/1 (1989), 133-139.
- Rüterswörden, U., “Alte und neue Wege in der Deuteronomiumforschung”, *ThLZ* 132 (7/8) (2007), 877-889.
- _____, *Dominium terrae: Studien zur Genese einer alttestamentlichen Vorstellung*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3).
- Schwemer, D., *Die Wettergottgestalten Mesopotamiens und Nordsyriens im Zeitalter der Keilschriftkulturen*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01).
- Schwiderski, D., *Die alt- und reichsaramäischen Inschriften*, Band II. Texte und Bibliographie (Berlin: Walter De Gruyter, 2004).
- _____, “Studien zur Redaktionsgeschichte und Religionsgeographie der akkadisch-aramäischen Bilingue vom Tell Feherje”, E. Schwertheim and E. Winter(ed.), *Religion und Region*, Götter und Kulte aus dem östlichen Mittelmeer, Asia Minor Studien 45 (Bonn: Dr. Rudolf Habelt, 2003), 31-47.
- Sommerfeld, W., “Flüche und Fluchformeln als Quelle für die

altorientalische Kulturgeschichte”, M. Dietrich and O. Loretz(ed.), *Mesopotamia - Ugaritica - Biblica*, FS K. Bergerhof, AOAT 23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3), 447-463.

Steymans, H. U., *Deuteronomium 28 und die adê zur Thronfolgeregelung Asarhaddons: Segen und Fluch im Alten Orient und in Israel*, OBO 145 (Freiburg Schweiz: Universitätsverlag/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_____, “Verheissung und Drohung: Lev 26”, H.-J. Fabry and H.-W. Jüngling(ed.), *Leviticus als Buch* (Berlin u.a.: Philo, 1999), 263-307.

Wellhausen, J.,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und der historis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⁴1963).

검색어

레위기 26장

숫자 칠

스피르

텔 페케리에

부칸

A Study on the Significant of Number Seven in Lev 26:14-33

Jong-Won Choi, Dr. theol.

Lecturer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onn University Dr. theol.

The present research primaril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number seven in Lev. 26 in relation to the northwest semitic inscriptions and Deut. 28. In the context of the northwest semitic inscriptions, the number seven is used with literary style-method as the meaning of 'treaty-curse'. From the composition critical method, Lev. 26 is in parallel with the schema 'bless and curse' in Deut 28. This concept is newly composed by a writer who synthesized a deuteronomistic and priestly thought in a composition 'promise and threat'. In Lev. 26 the central paragraph is the part of 'the curse'(vv. 14-33). To be fair, it shows that the exilic situation of the Book of Ezekiel is presupposed.

In this study, the number seven(v. 18, 21, 24, 28) is dealt with the content

www.kci.go.kr

‘knife, hunger and infection’ as the curse-triad in the paragraph of ‘the curse’. From this analysis it is possible to explain systematically the negative conditional clauses with the ‘sevenfold-schema’. The paragraph reflects an expansion of literary style in Deut. 28 and theological thought in the text of Ezekiel. The point of the indirect compositional view is dependent on an ideological aspect of northwest-Semitic in the ancient Near Eastern. This development shows that the paragraph ‘the curse’ in Lev. 26 is originally instructed on the sevenfold-structure as used in Deut. 28.

The editor(or compiler) of Lev. 26 deals with a literary style, which is stated as a breaking of the promise or treaty made with the Israelites. This style is best illustrated in the inscription of Sefire, Tell Feckeriye and Būkan in the northwest-Semitic domain. As a result, the text gives us a clue to an invention of some written tradition that the number seven provides the specific means as curse/treat and punishment in the breaking of promise or treaty.

Keywords

Lev 26

Number Seven

S^c fire

Tell Fekherije

Bukān

- 투고일: 2013년 1월 01일
- 심사일: 2013년 1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2월 8일

www.kci.go.kr